

## 찬기파랑가-항가연구 1-

---

<b>저자 (Authors)</b>	서재극
<b>출처 (Source)</b>	<a href="#">어문학</a> , 1971.11, 122-123(2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a> , 1971.11, 122-123(2 pages)
<b>발행처 (Publisher)</b>	<a href="#">한국어문학회</a>
<b>URL</b>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91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911</a>
<b>APA Style</b>	서재극 (1971). 찬기파랑가-항가연구 1-. 어문학, 122-123
<b>이용정보 (Accessed)</b>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1 10:1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學으로 삼게 했으며 이를 克服한 洪吉童傳이야 말로 小說史의 劃期的인 作品인  
을 再認識케 한다.

- 3) 日本小說 金色夜叉의 雛案小說인 長恨夢을 外國文學受容의 方便이라는 面에서  
金燕新話와 同軌의 文學史의 位置를 지닌다.
- 4) 長恨夢은 現代小說의 嚆矢인 無情과 對比하여 그 側面에서 通俗的인 面에서는  
영향을 두지할 수 없으나 文體面에서는 無情이 이를 克服함으로써 오히려 現代  
小說의 出發을 促進케 하였다.
- 5) 雛案小說의 文學的 價値는 그 創意的 要素인 主題와 文體에 있다.

讚 耆 婆 郎 歌

——鄉歌研究 1——

徐 在 克

啣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jənaj c'imaɲ najpic'ujjan tɕri  
 연애 지매 내비취안 드리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hɕjnkurum coc'o ptəka suman(h)i(h)a  
 흰구름 조흔 떠가 수다니아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良史是史政邪  
 saɲ parɐn cɪnp'ərijaj kiraŋɕj cisi sjə:sjura  
 새 바튼 큰퍼리애 썰郎이 쓰시 셔슈라

逸鳥川理叱磻悉希  
 cəro nari+ cɕjɲjəkhɪj  
 절오 나리(入) 켜력희

郎也持以支如腸鳥隱 心未際叱盼逐內良齊  
 naɲja tin(h)itasjaon mɐsɐmɕj kɕɪs(h)ɐr cotɕɐpacjə  
 郎이야 디니다샤은 단스티 마갈 쫘즈라져

阿耶 栢史叱彼次高支好  
 aɪ ca:s ÷ ka:ci nophi koj (a)  
 아으 잣(入) 가지 노피 꺾(아)

誓是毛冬乃乎尸花判也  
 səri mo:t nojjo:r hwap ʻanija  
 서리 블 뇌을 花判이야

<論文은 「新羅伽倻文化」第3輯에>

## 國語音韻의 變形構造

——變形生成文法理論에 依한 國語音韻構造의 記述——

金 永 松

本研究는 Jakobson에 비롯된 兩分對立說(binary opposition theory)에 依하여 國語音韻의 組織을 體系化하여 그 變形構造를 記述하는 데 目的이 있으나, 여기서는 第一次의인 作業으로 音韻組織의 體系化를 試圖하는 데 그친다.

形態素 「불」과 「플」은 音素 /ㅂ/과 /ㅍ/으로 辨別된다. 이와 같은 記述은 意味의 單位로서의 音連鎖(/ㅂㄸㄹ[火]:ㅍㄸㄹ[草]/)가 그 記述對象이 되기 때문에 形態音素論의인 作業이다. 그러나 非意味의 單位로서의 音素 /ㅂ/과 /ㅍ/의 辨別은 音素의 下位單位에서 그 資質을 求할 수밖에 없다. 卽, 「ㅂ」과 「ㅍ」은 그 調音部나 調音方式이 같고 다만 「氣」의 有無로써 辨別된다. 「氣」는 音素의 單位가 되지는 못하나, 音素 「ㅂ」과 「ㅍ」을 辨別하는 要素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이 Jakobson등이 말하는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이다.

形態素의 下位構成單位를 音素로 할 때, 形態論과 音素論의 限界는 「意味」에 있다. 그러나 音素와 그 下位構成單位로서의 d. f. (distinctive feature)와의 限界는 意味에 둘 수는 없다. 音素가 分節의인 音單位임에 依하여 d. f.는 非分節의이요, 다만 分節音을 形成하는 音響的 調音의 資質에 不過하므로 그 限界는 分節性 與否에 맞을 수 밖에 없다. 音素를 「몇가지 資質의 同時的 實現」으로 보는 觀點은, d. f.를 意味分化의 機能面에서 設定한 辨別資質과 區別시키며, 形態音素論의 範疇 안에서 다루어 지는 單位로 보게 한다. 그러므로 d. f.의 設定이나 記述은 意味가 考慮되지 않는 것이다. 그 單位로 分節音素 以下の 音資質이기 때문에 音響學的인 作業이 必然的으로 隨伴된다. 事實 Jakobson의 d. f.도 音響學에 基礎를 두고 있다.

그러나, 音響學的 作業에 依하여 얻어진 結果는 調音의 記述과 一致하거나 密接한